

“끝난 줄 알았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검사자 ‘복적’

71일만에 다시 문 연 광주 임시선별검사소 가보니

개소 1시간30분만에 120명 방문...검사 인력 구슬땀 오후 2시부터 7시간 운영, PCR 자격 있어야 가능



11일 오후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주차장에 재설치된 광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김애리기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네요” 광주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임시선별검사소가 71일만에 재개했다.

검사소가 문을 연 11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5-18교육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약 20개 가량의 천막으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문진작성부터 접수 및 검사까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었다.

특히 그간 수도권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도입돼 있었지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패스박스 검사 방식을 택해 보다 안전하게 검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연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3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천막으로 들어왔다.

검사소가 문을 연 지 약 1시간30분 가량만에 12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왔다.

해의 귀국자, 가족 병원 문안을 위한 검사 등 다수의 시민들이 끊이지 않고 검

사 대기 행렬에 동참했다.

말 두 명이 모두 확진돼 가족 자격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은 가족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다시 돌아가지도 못했다.

이날 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은 “마침 PCR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날 검사소가 문을 연다는 광주시 알림 문자를 받고 집 근처라서 방문했다”며 “새삼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소에 총담된 인력은 약 10명 가량, 직원들은 옷 위에 보호복을 덧대 입고 페이스 쉴드와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밀려드는 검사자들을 상대하다가도 이따금 선풍기 앞에서 연신 땀을 식혔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광주시청 임시검사소에서 방역을 도맡아왔다는 한 직원은 “시청 임시검사소가 문을 닫을 때 이제 거의 끝났구나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광주시청에 설치됐던 임시선별검사소의 경우 2020년 12월2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됐으며 이후 올해 1월17일 광산구 하남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올해 4월22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에 위치해 있으며 검사를 비롯해 일반적인 진료가 가능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단순 검사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광주에 위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 설치된 5-18교육관이 유일하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검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양성자, 밀접 접촉자(지정문자), 입영 장정 등 PCR 우선 순위 대상자만 가능하다.

PCR 검사를 위해서는 신분증, 의사소견서, 보건소통보문자, 양성이 확인된 자가 진단키트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시민은 광주 385곳에 위치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면 된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광주시 확진자는 4천804명, 전남은 5천342명이 발생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께 약 4달만에 5천명을 넘어섰다. 3월16일 1만6천여명 확진을 기록, 이후 꾸준히 5천여명을 기록하고 4월14일 5천명 이하로 떨어진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재감염 사례의 경우 5월에는 1% 남짓, 6월에는 2.4% 가량이었지만 7월에는 5.1%로 2배가 넘게 늘어났다. 현재까지도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감염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 감염이 됐거나 예방 접종 이후 120일이 지난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상황의 심각성이 강조된다.

홍상의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4월 이후로 눈에 띄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5천명을 훌쩍 넘어섰고 현재까지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민기자

목포시, 어린이집 관리·감독 부실 ‘도마위’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원장겸임제한 위반 등 적발

〈속보〉최근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던(본보 7월28일자 11면) 목포시내 어린이집과 관련, 각종 위반사항이 추가 적발되면서 목포시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비롯해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원장 겸임 제한 위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 어린이집 한 곳에서 복마전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석현동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비롯해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원장 겸임 제한 위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이 드러나 이달 3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아들에 대해 전원 조치했다.

한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위반사항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정작 목포시는 학부모들이 언론에 제보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아 4명의 연장보육료를 허위 청구해 111만9천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출결카드를 어린이들 가방에 부착해 등·하원 시점에 기록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하원 시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령했지만 목포시는 언론 보도 이후야 관련 사실을 뒤

늦게 확인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A오양원의 대표를 겸임해 원장 겸임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원아들에게 식단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잠복결핵과 관련, 실제 검사를 받아야 할 영유아 1명을 검사 대상에서 누락했던 것도 드러나 목포시보건소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대다수 어린이집은 규정을 지키며 잘하고 있다”며 “관내 어린이집이 157곳이나 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대표와 종사자 등에 대한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숙취 음주운전 단속 여름 휴가철과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음주운전 증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1일 오전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관내 한 도로에서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숙취 음주운전 단속 여름 휴가철과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음주운전 증가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1일 오전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관내 한 도로에서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112에 신고하라” 출동 거부 광주소방 부실 대응 논란

“주취자로 판단했다” 해명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되레 “112로 신고하라”며 부실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7분께 광주 북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신고자에게 “112로 신고하라”며 출동을 거부했다.

길에 쓰러진 A씨는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졌는데 이를 설명한 신고자의 설명을 듣고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며 신고자가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 소방당국은 짐작만으로 출동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후 조사에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출동을 거부한 사이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뒤에서야 구조대를 출동시켰다.

최초 신고를 한 지 1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이러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쓰러졌다 일어났다가 반복하는 주취자로 판단했다”며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해 요구 조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지병이 있던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길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영기자

광주진보연대 “경찰 입문 논란 김순호 경찰국장 퇴임 촉구”

광주진보연대가 ‘밀정 논란’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진보연대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대 운동권 내부 정보를 당국에 알렸다는 ‘밀정논란’이 김순호 경찰국장의 노동운동, 전향, 대공 특재, 초고속 승진, 경찰국장 임명으로 이어지는 행적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났다”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광주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김 경찰국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순호 국장 임명으로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 공안통제로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은 경찰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독립적인 치안활동을 펼치려는 경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정부는 조건 없이 경찰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경찰 중 민주인사 탄압을 상징하는 ‘치안본부’ 출신을 (경찰국장에) 임명해야 하는 지의문”이라며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배신하고 입신·출세한 밀정 의심을 받는 사람이 경찰국장을 맡는 것은 현 정부의 경찰 장악 등의 의도를 짚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1980년대 운동권 내부 정보를 당국에 알렸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오복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